

## 머리말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부회장 유자와 나오미(릿쿄대학교)

지진,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COVID-19(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습격하여 세계적 위기가 초래된 지도 곧 1 년 반이 되려고 합니다. COVID-19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또한 삶과 고용,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등 “코로나 재앙(コロナ禍)”이라 불리는 사태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화(慘禍) 가운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현대사회는 여러 지역이 다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각지를 생각해 보면 방사능 오염에 의해 “피폭의 숲(被爆の森)”이라 불리게 된 땅, 진행을 방해받는 전사자 유해 수습 등 이 땅에 어떠한 형태로 생태계와 사람들의 영혼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넘쳐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와 올림픽 보도에 의해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복구와 부흥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코로나 재앙” 중의 올림픽 개최로 “노상생활” 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의 존재가 감쪽같이 지워지는 일상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가까워진 “생명”의 위협과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어른의 사회는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기에 학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물음이 일어났고 지금이 그 진가를 발휘해 나갈 때라고 실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상황에서 일깨워지는 실태와 문제 구조를 가시화하는 것, 기존의 또는 신규의 제도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 후세를 위하여 기록과 데이터를 보존해가는 것 등 해야 할 연구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즈, 사스, 에볼라 출혈열, 그리고 COVID-19 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존의 국제보건기구의 한계를 인류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글로벌 헬스”라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詫摩: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증의 위협과 영향력은 사회적 불평등을 배경으로 격차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 영향력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의 상황을 소개한 鈴木和子は 피해 상황이 연령에 관계없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디언)과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중남미계) 등의 입원율 및 사망률이 비 히스패닉계 백인(이하 ‘백인’)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조정입원율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비 히스패닉 계의 흑인이 각각 백인의 약 5.8 배, 4.7 배, 4.6 배로 높게 나타난 것 처럼 “코로나 재앙” 속 미국의 인종간 격차는 심각합니다(鈴木:2020).

이러한 배경에는 적절한 의료에 대한 접근 격차와 그에 기인한 높은 기저질환 보유율, 다수의 필수노동자(Essential-Worker) 및接客업 종사자와 같은 직업적 영향과 임금 격차, 주거 환경의 격차, 정보 격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鈴木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VID-19 감염이 폭발한 뉴욕시의 상황에 대해 논한 牧野百恵는 뉴욕시가 웹사이트에 매일 갱신하고 있는 인종별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률과 인종, 소득, 교육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인종에 의한 감염률의 통계적 차이는 없고 특히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감염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COVID-19가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있어 교육격차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牧野:2020).

이처럼 COVID-19가 초래한 건강 피해의 격차와 노동,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격차는 국가와 지역, 인종과 성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에비던스(evidence)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염증에 의한 피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재앙” 속에서 중층화(重層化)하며 고착되어 가는 사회적 불평등이 어떠한 형태로 변용되어 가는지 일본에서도 사회복지학적 지견(知見)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연구 능력 중 하나로써 “주목 격차(注目格差)”라는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와 감염증의 싸움의 역사를 국제정치의 시점에서 논한 詫摩佳代는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할 권리”를 확보함에 있어 큰 문제가 “주목의 격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詫摩는 “소외열대질환”은 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자 빈곤을 조장하며 만성적 빈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詫摩:2020).

이것은 “주목 격차”의 일례이지만 COVID-19의 지속적이고 매우 큰 영향력 안에서 진정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연구자 각자가 전문적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예지(叡智)를 축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학회라는 조직이 연구자 한명 한명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연구의 지견이 시민 한명 한명을 임파워먼트 할 수 있도록 함께 한발 한발 걸어갔으면 합니다.

##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69 회 추계대회 개최 안내

실행위원장 츠즈키 코우이치(도호쿠복지대학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례적이지만 1 년 늦게 제 69 회 추계대회의 개최 교를 도호쿠복지대학교가 20 년만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웹 상으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개최교로서도 처음인 일이지만 많은 분들의 지도와 조언을 얻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죽음에서 생을 바라보는 복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인 지금, 사람의 죽음은 더없이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많은 현장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복지 현장에서는 죽음에 직면한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현장 직원 등 복지 관계자로부터 누차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방의 작은 마을과 동일본대지진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사례로서 이미 돌아갔어도 지역의 사람들과 잦은 교류가 있던 분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화제가 되는 등 그 존재가 잊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교류가 없었던 분은 지금도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죽음”의 인식은 사람의 존재 유무 그 자체와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본인 이외의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 처음으로 사회적인 “죽음”이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학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기초강연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사회적인 사실과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이상, “죽음”도 사회적 사실과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가치 있는 이상, “죽음”을 어떻게 보고 인식하며 복지의 입장에서 설명한 뒤에 어떠한 실천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논의를 거쳐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고 그러한 상황의 사람의 “죽음”을 대할 때에는 “존엄한 죽음”에 상응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토론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발제를 하고 그에 대해 깊은 토론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대회 첫날 오전에는 연구자로서 어떻게 연구 주제를 심화시킬 것인가 “연구 주제의 확장, 심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스타트업 심포지엄을 ‘온 디맨드(on demand)’로 실시합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코로나 재앙 속 국제사회복지연구 및 교육활동”을 주제로 유학생과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을 겸하여 두 특정과제 섹션을 개최합니다.

오후에는 학회의 첫 시도로 회원 분들의 연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론을 고민하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세계관 탐색”을 개최합니다. 그 외에도 예년과 같이 연구 발표로서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발표의 수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코로나 재앙”에 의해 계획대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연구자 분들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구 발표가 충실히 이뤄져 의미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센다이(仙台)에서 환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첫 웹 대회로서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여러분과 함께 충실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일동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가를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69 회 춘계대회 보고

전국대회 운영위원 춘계대회담당  
오카다 신이치(오사카시립대학교대학원)

대회 주제 : 인지증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생사회를 지향하며  
-인지증 케어와 강점접근(Strength Approach)-

개최 일시 : 2021년 5월 30일(일) 13:00~17:00

장 소 : Web 개최

지난 2021년 5월 30일(일)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일반사단법인 일본 사회복지학회 제69회 춘계대회가 “인지증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생사회를 지향하며-인지증 케어와 강점접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웹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기하라 카츠노부(木原活信) 학회장의 대회 개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사회복지학회 2020년도 학술상 수상자 강연으로 스즈키 히로유키(鈴木浩之, 릿쇼대학교;立正大学) 회원이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서 보호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가족과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배우는 실천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실천현장의 목소리를 실천모델로 구축하는 방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折り合い)”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스즈키 회원의 연구 내용과 실천 지식의 체계화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제시되었습니다.

학술상 수상자 강연에 이어 “인지증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생사회를 지향하며-인지증 케어와 강점접근-”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 마츠모토 잇쇼(松本一生, 마츠모토 진료소;松本診療所)씨와 나카무라 코우이치(中村孝一, 인지증 개호 연구·연수 동경센터;認知症介護研究・研修東京センター)씨가 등단하였고 코멘테이터는 가사하라 사치코(笠原幸子, 시텐노지대학교;四天王寺大学)씨가, 코디네이터는 오카다 신이치(岡田 進一, 오사카시립대학교;大阪市立大学)씨가 맡았습니다.

첫번째로 마츠모토 잇쇼 씨가 “인지증과 강점접근: 의학의 입장에서”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증 고령자의 병식(病識)의 유무, 주로 인지증의 유형(알츠하이머형, 레비소체형, 혈관형, 전두측두엽변성증)과 그 특징, 코로나 감염증에서의 대응, 인지증 고령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견지(見地)에서 지역공생사회에서의 인지증 케어의 방식, 인지증 고령자에 대한 강점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번째로 나카무라 코우이치 씨가 대회 주제와 동일하게 “인지증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생사회를 지향하며-인지증 케어와 강점접근-(문제제기)”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증 고령자 존재의 존중, 케어 측의 사실과 해석에 대한 구별의 중요성,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ICF)의 사고 방식, 인지증 행동심리증상 (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의 인식, 인지증 고령자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이었습니다. 또 인지증 고령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지증 고령자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사실과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배경 요인 분석이 중요하며 배경 요인을 이해하면서 인지증 고령자의 말과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가사하라 사치코 씨가 두 사람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였고 그 후 참가자의 여러 질문도 있었습니다. 의미있는 심포지엄이 되었습니다.

와케 준코(和氣純子) 부회장의 폐회 인사를 마지막으로 무사히 제 69 회 춘계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대회의 개최에 협력해 주신 많은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리즈

앞으로 사회복지학에 기대하는 것 제 3 회

## 마음을 아파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진지하게 화를 내다

### -그리고, 복지 철학의 구축을-

아키야마 토모히사

복지철학연구소소장(사회복지학 박사)

#### 1. 복지현장에 도움이 되는 학문연구를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시설장이 복지실습생의 ‘보육사처럼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요구에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기술은 금방 쓸모가 없어진다’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우에노 치즈코가 말하는 ‘불요(不要)·불급(不急)의 학문’이라는 시점이 좋다. 하지만 인간성을 깊이 파고드는 학문과 다르게 사회복지학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해도 가까운 미래의 복지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명을 갖는다.

복지현장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현장에 밀착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 특히 케이스워크를 담당하는 교수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무 경험이 없고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논어를 읽되 논어를 모른다’가 아닌 ‘케이스워크 가르치되 케이스 워크를 모른다’이다 (소셜워크로 바꿔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의 아픔·신음을 느끼는 것, 복지현장 직원의 고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비록 짧더라도 실무 경험을 갖는 것, 그것이 교수가 되는 돌아가는 길이라면 적어도 교수가 된 뒤에 봉사 활동 및 비상근 근무, 복지현장에 정기적인 참가, 필드워크 등이 필요하다. 실천가의 엄중한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교수는 너무도 복지현장과 괴리되어 있다’, ‘실천을 이론화 할 수 있다(해 주겠다)라는 거만한 태도’, ‘이론과 실천의 협력이라는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불명확하다’등이다.

필자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지도 교수인 시마다 케이치로 교수님을 찾아가 정말 뜻내 나는 부끄러운 부탁을 했다. ‘일본에서 가장 혹독한 복지현장은 어디인가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취직해 보니 도저히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복지현장은 혹독했다. 필자가 생활한 24 시간 365 일 상주형 근무의 시설 내 직원주택에서 겨울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눈이 쌓여있었다. 이러한 복지노동의 상황·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세를 가진 학문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치면 진심을 다해 좋은 일은 할 수 없다’라는 시점이다.

## 2. 클라이언트의 아픔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지탱하는 학문을

요즘 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국가시험에 얽매어 국가시험 맞춤형 교육 및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원이 채용되거나 교원은 학생을 국가시험에 합격시키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곧, 법률과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해설만을 중요시 하는 사회복지사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굳이 심하게 말하자면 법률·제도를 설명하는 ‘기술자’를 생산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일본사회복지사회 ‘설립 선언’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필자 기안, 마지막 일부만 인용).

우리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이 바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더 좋은 삶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비인간적인 사회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한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하며 원조한다.

이 ‘선언’에 따르면 현실의 복지 행정에 대한 과도한 밀착과 응원에만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적어도 거기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정신이 담겨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럼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①사회복지 이용자(클라이언트)의 생활과 인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제도와 자원·환경을 이상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며, ②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회복지 이용자의 생활과 행동, 의식을 변화시키며, ③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주민의 차별 의식을 변화시키며, ④관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조해 보면 당신의 연구에서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 3. ‘에비던스(evidence)’만으로 괜찮은가 -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반론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이라는 주술(심리적 속박) 또는 스테레오 타입의 표현으로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으로만 이루어져있을까? 괴로워하는 클라이언트 마음의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원조할 수 있을까. 물론 사회과학은 생활 문제의 배경을 분석하고 ‘변혁(변화시키다)’을 위해 중요하지만 고뇌하는 내면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곳에는 심리학과 같은 인간행동과학이 있다. 즉,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과 인간행동과학의 종합 과학인 것이다.

그러나 1920 년 말기에 물리학자와 수학자로 결성된 비엔나 학단이 주장한 실증 가능한 ‘과학적 지식’만을 옳다고 본 과학관에서 제창한 ‘논리실증주의’가 1980 년대 미국 소설워크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 ‘에비던스’가 필요 이상으로 횡행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일본 사회복지계에는 ‘에비던스’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 1949 년 12 월에 이미 전통적인 언설이 되었지만 캐나다 사회복지사협회의 Swithun Bowers 신부가 ‘소셜 케이스워크는 아트(art)다」 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아트란 기술 + 가치판단’이다.

실천에서 직면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가치 개념이 포함된 사실’이다(Edward C. Lindeman and Philosophy of Social Work: G Conopca, 예: 쓰러져있는 것은 물체가 아닌 사람이다). 분명히 소셜워커의 일은 단순한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후에도 실로 많은 사회복지연구의 논문·저서에서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미소셜워커협회(NASW) 윤리강령 개정위원회의 전 위원장(currently a professor of Rhode Island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인 Frederic Reamer 는 ‘과학적 렌즈를 통해서만 소셜워커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실천의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단락(段落) 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수학과 통계·조사에서 ‘인간과 사회’ 전부를 밝혀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셜워커는 그 시대와 사회, 소셜워커 자신의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실천에서의 과학과 아트의 적극적인 통합’이라는 소셜워커의 ‘이중성’은 강력하게 계속 주장되고 있다(Reamer, 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Social Work).

#### 4. 복지철학의 구축을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비판이 있었다. 그것은 실천과 연구의 근저에 존재하는 가치·사상·철학의 결여이다.

##### 복지철학의 독자성 - 복지철학과 기존 철학과의 차이

근저에 있는 과제는 ‘복지철학과 기존 철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이다. 그 주된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자(필자는 사회복지와 복지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기에서는 ‘복지철학’이라고 칭함).

##### 1) 대상이 되는 인간

그리스 철학 이래 기존의 서양 철학은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등 철학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모두 ‘심신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healthy people)’이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A.매슬로우의 ‘존재의 심리학(원제: Toward a psychology of Being)’이라는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에 관한 탐구이다. 거기에서도 장애인·빈곤자·식물 상태의 환자 등은 제외되었다. 영국 경험론에서 말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목적의 대상은 ‘최대 다수’이며 사회복지의 ‘대상’인 소수자는 제외되어 있다.

##### 2) 고찰하는 과제

기존의 철학(이하, 일반철학)은 존재와 인식, 본질과 현상, 행복, 이성, 우주 등이었다. 그러나, 복지철학의 과제는 생활고·사회고(악)·불행과 고뇌 등이다.

### 3) 시점

일반철학이 통상적인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관점인 것과 달리 복지철학은 사회복지당사자의 시점, 최저점(최저선이 아님)에서의 인간 존중이라는 시점이차별받는 ‘측’의 시점이다.

### 4) 복지철학의 연구방법

일반철학은 사색·사변·내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복지철학은 ‘타인에 대한 통각’에서 출발하여 고뇌·불행이 ‘타인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당사자의 입장에 서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 5) 복지철학을 기초로 한 실천

일반철학은 심신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정형적 발달, typical development)을 대상으로 한 임상철학이지만 복지철학은 소수자의 지원, 소셜워커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한 실천이다. 거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내재적 차별’을 응시하고 상대에게 부채의식을 가지면서 완전한 공생은 불가능하지만 끝없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는 ‘공생으로의 접근선’을 계속 걷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인생의 부조리 속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한결같이 기다리는 실천’을 할수 밖에 없다(후술).

## 5.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가 - ‘아픔’과 ‘부채의식’의 자각

필자는 항상 학생들에게 소셜워커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감수성’이라고 말한다. 꽃과 벌에도 감동하지 않고 산과 바다에도 관심이 없으며 개나 고양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즉, ‘타인에 대한 통각’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감수성이다.

최근 10 여년 사이에 사회복지계에서 자주 사용된 것이 ‘함께하다’라는 말이다.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간제한의 초과와 노동의 로테이션을 거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다른 사람과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나아가 ‘타인에 대한 통각’을 어디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시적 감상으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면 곧 머리에서 그 일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일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갈(지도 모르다) 자신’에 마주한다. ‘귀찮고 성가신 이용자가 있다(예: 밥먹은 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스콧 팩), ‘이젠 지쳤다’, ‘일이 싫어졌다’, ‘이젠 그만두고 싶다’라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스스로의 나약함과 끊임없이 마주하는 실천자가 있다.

하지만 자기자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고대 로마의 철인 세네카는 명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이와나미 서점)에서 경고한다.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일’은 일본에서는 ‘ 좋지 않은 일이 언제든 자신에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의미이다. 사회복지실천은 타인의 ‘불행’에 관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불행으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다. 혼자만 ‘의자잡기 게임’에서 이겨 지금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부담감’이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악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사람을 위해서라고 선의로 생각하면서 상처를 주는 실천이 있다. 중국 6 세기 정토교의 시조 선도대사의 말인 ‘잡독의 선’, 즉 좋게 여겨 행한 행동에 잡다한 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단테가 ‘신곡(神曲)’에서 묘사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천의 모순을 야기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주시하는 것이 자신의 처지에 비춰 추구하는 연구와 그 나약함을 아픔으로 그러나 열의를 갖고 말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 6. ‘한결같이 기다리는 실천’의 탐구와 교육

1) 인생의 고뇌 속에는 소셜위커의 상상력을 초월한, 혹은 수용의 감수성을 까마득히 초월한 가혹한 현실이 인생에는 존재한다. 그것을 ‘잘 안다’ 등과 같이 습관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거짓된 태도이다. 어쩌면 그 무시무시함 앞에 그저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겪었던 삶의 무게와 신음 앞에 그 아픔을 생각하며 그저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있는 것이 없다. 소셜위커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을 뿐"이라는 ‘한결같이 기다리는 실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천’, 그렇지만 근본부터 ‘사람’을 지탱하는 실천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라건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실천’이다. 그것이 ‘원조’의 궁극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2) 사회복지연구에서는 이론과 함께 무엇이 ‘바람직한 실천’인지를 찾는다. 그러한 사회복지학을 배운 학생들이 혹독한 현장으로 나간다. 그리고 머지않아 좌절한다. 어느 사회복지전국대회에서 35 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베테랑 위커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심각하게 자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진 ‘이 일을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에 힘을 얻게되었다.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지 않고 되돌아가고 싶어도 물러설 수 없다. 필자는 이것을 ‘어중간한’ 자세라고 부른다. 이럴 때에 슬퍼도 견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학생에게 전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려운 이론을 소화가 덜 된 채로 전하는 것 보다 실천 속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때 생각을 뒷받침하는 ‘바람직한 실천’을 말하기보다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 앞에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이 더 성실한 것 같다. 한 사람의 연구자가 클라이언트의 혹독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피고 그 전체상을 해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아무리 질적연구라 해도 그 행동조차 클라이언트의 넘쳐흐르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 담아낼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연구와 실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교육은 ‘희망’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미래를 향해 ‘밝은 의욕’을 갖고 앞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7. 마지막 한마디의 고언 - 연구자와 학회에게

최근의 학회 발표를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 편수만을 신경쓰는 ‘실적을 위한 연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복지현장의 종사자가 ‘최근 학회는 재미없다’, ‘(겉치레) 칭찬이 대부분이고 격렬한 토론이 없다’, ‘박력이 없다’라고 혹평한다. 또한 이미 다른 연구자가 발표한 것을 마치 자신이 새롭게 생각한 것처럼 발표한다.

최근의 학회는 허전하다. 그 중의 하나가 경험이 풍부한 연배있는 연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력과 체력이 쇠약해 지는 것에 저항하기가 쉽지않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학회 자체에 참가하지 않을 뿐더러 연구 발표 등도 하지 않는다. 과거 요시다 큐우이치 교수님이 80 세에 발표하신 후에 필자에게 하신 말이 있다. 재미도 있었지만 엄중한 말이었다. ‘(학회, 그리고 실천현장에서도 최고로 저명한) A 군에게 말해 두겠네, 자네도 발표하게’. 연배있는 연구자가 참가하여(그 발언의 기회도 만들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 젊은 연구자는 더욱 긴장하게 되고 격려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왜 학회에서는 사회적 발언, 정책 제언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복지현장의 종사자가 말한다. ‘우리는 직장에 묶여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교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라고.

제대로 된 연구자는 화를 내야 한다. 빈약한 사회복지제도·시스템 구조에 대해, 말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실천가를 위해, **제대로 된 연구자는 화를 내야 한다.**

주: 본문 안에서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 중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필자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전미소셜워커협회(NASW)의 윤리강령 전문 :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란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을 가리킨다’.

#### 참고문헌

프레데릭 리머 저, 아키야마 토모히사 감역 『소셜 워크의 철학적 기반』, 아카시 서점, 2020 년.

아키야마 토모히사 『사회복지사상 입문 - 왜 「사람」을 돕는가』, 미네르바 책방, 2016 년.

아키야마 토모히사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연구』, 미네르바 책방, 2007 년.

아키야마 토모히사 『사회복지실천론 - 방법원리 · 전문직 · 가치관』 (개정판), 미네르바 책방, 2005 년.

프레데릭 리머 저, 아키야마 토모히사 감역 『소셜워크의 가치와 윤리』, 중앙법규(츄오우호우키) 2001 년.

(명예교수 아키야마 토모히사 2021 년 6 월 24 일 기)

## Twitter 학회 공식계정 개설 안내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토 카요코(오사카부립대학교)

이번에 학회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학회에 관련 정보 발신, 신규 회원 확보, 회원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촉진 등을 위해 Twitter 학회 공식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Twitter 팔로우, 비회원 주변분들에게 안내와 홍보, 활발한 교류 촉진 등 회원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학회 공식계정을 통해 공유해야 할 정보 등이 있으시면 학회사무국이나 홍보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회의 홍보 활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監訳者

姜 民護 (同志社大学社会学部社会福祉学科助教)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客員研究員)

## 翻訳者

李 承玟 (同志社大学大学社会学研究科社会福祉学専攻博士後期課程)  
担当ヶ所: 心を痛め, 謙虚に学び, 真剣に怒る—そして福祉哲学の構築を—

李 賢娜 (同志社大学大学社会学研究科社会福祉学専攻博士後期課程)

担当ヶ所: 卷頭言  
日本社会福祉学会第 69 回秋季大会開催のご案内  
日本社会福祉学会第 69 回秋春季会報告  
Twitter 学会公式アカウント開設のご案内

## 번역 감수

장 민호 (도시샤대학 사회학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 번역

이 승민 (도시샤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사회복지학전공 박사과정)  
담당: 마음을 아파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진지하게 화를 내다—그리고,  
복지 철학의 구축을—

이 현나 (도시샤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사회복지학전공 박사과정)

담당: 머리말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69 회 추계대회 개최 안내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69 회 춘계대회 보고  
Twitter 학회 공식계정 개설 안내